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7



研究機關：江原大學 統一問題 研究所

責任研究者：金 在 勳

目 次

I. 序 論	3
II. 民俗芸術交流의 目的	8
III. 南北韓 民俗芸術	10
1. 南韓의 民俗芸術	10
2. 北韓의 民俗芸術	38
3. 南北韓 比較	48
IV. 民俗芸術交流의 可能性斗 問題点	53
1. 限界性	53
2. 問題点	54
V. 对外協力方案斗 그 問題点	57
1. 对外協力方案	51
2. 問題点斗 对策	60
VI. 結 語	62

I. 序 論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關한 大統領의 6.23 特別聲明이 發表되었다. 統一政策의 實現을 爲하여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適應하며 從來의 明分外交로 부터 現實 追求的인 開放外交政策을 宣言함으로서 國際機構를 통한 北韓과의 새로운 次元에서의 善意的 競争을 提起한 積極外交의 內容인 것이다. 特히 南北對話의 成功的인 結果를 爲하여 忍耐와 誠實로서 繼續 努力하여 平和統一의 成就를 爲하여 努力을 繼續 傾注할 것을 淸명한 6.23 特別聲明은 國際解氷潮流에 積極 寄與할 것임은 勿論 平和統一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確信한다.

對話의 擴大는 그 波及效果로 말미암아 南北間의 接觸 交流를 發展시킬 것이며 接觸 交流의 發展은 特히 北韓의 閉鎖體制를 開放된 世界에 適應하도록 變化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理由는 우선 對內的으로는 革命成就後 오랜 時日을 經過한 共產主義國家에서는 長期的 抑壓에 對한 反撓과 安定 및 産業化에 따른 物質的 慾求充足에의 期待上昇 그리고 狂信的인 革命世代의 退陣과 이레오로기 보다는 合理性和 實際的 價值에 大의 關心을 갖는 知識層의 새로운 支配勢力으로의 登場과 大衆의 壓力을 形成하게 되며 對外的으로는 急速히 發展하는 世界속에서의 孤立과 經濟成長의 落後性을 脫皮하려는 焦燥感이 그들로 하여금 外部世界에 눈을 돌리게 하여 革命의 遂行보다 資本主義와의 共存 및 修交 通商 等 交流의 길을 模索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蘇聯은 50年代末부터 이길에 들어섰거니와 中共은 大躍進運動과 人民公社 그리고 文化大革命 等の 失敗의 經驗을 거친후 70年代에 들어가 비로서 이길을 摸索하기 始作하였으며 가장 落後된 共產主義 体制인 北韓도 이와같은 轉換에 着手하였으며 6.23 特別聲明이 있는 직후 北韓의 駐유엔 代表部 設置要請은 이러한 強要된 適應過程으로서 對南赤化統一이라는 그들자신의 主觀的인 基本 戰略과는 關係없이 變遷하는 世界史에 呼應하지 않을 수 없는 措置로 보아야 할 것이다.

分明히 北韓의 支配体制은 하나의 轉換期에 놓여있다.

個人偶像化를 위한 歷史의 捏造와 샤머니즘적 聖物崇拜, 權力的 基盤을 極度로 縮少시킨 族閥政治와 極端의 權威主義 等の 統治形態는 이제 그 維持能力이 限界點에 達한것 같다.

더욱이 7個年計劃의 失敗가 보여준 바와같이 그들의 經濟建設은 如意치 않고 過重한 軍備 負擔과 長期間의 消費抑制로 인한 大衆의 慾求不滿은 戰爭遂行을 더 以上 밀고 나갈 수 없게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北韓社会 內에서도 合理主義的 思考方式으로 기울어지기 쉽고 既成秩序에 反抗的인 새 世代의 出現과 平和的 共存과 開放化 및 自由化를 要求하는 内外의 壓力은 날로 加重되고 있다.

北韓支配層이 近来 修正主義에 對한 警戒과 外来文化의 浸透防止를 強調해온 것은 그들 内部에 있어서의 思想統制의 어려움을 反証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極烈하게 非難하던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財導入을 서

두르고, 南韓과의 緊張緩和와 부르조아 思想이라고 배격하던 人道主義에 同調하게 된 動機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6月 12日 南北調節委員會 3次會議가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會談內容은 7.4 共同聲明 精神과 其他 南北間의 合意事項을 誠實하게 遂行하는 問題 分科委員會 構成方法 調節委의 実務機能을 整備하는 問題 등이 広範圍히 討議되었다고 報道되었다. 이날 會議에서는 7.4 共同聲明 精神의 존중에 對한 서로間의 立場을 밝혔을 뿐 別다른 合意點은 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3次에 걸친 調節委 會議와 6次에 걸친 南北 赤十字 會談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會談의 結果는 原點에 정돈된채 別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南北韓의 代表가 各己 상대방을 교대로 방문하였다는 事實이 成果라고 한다면 對話와 交流의 可能性과 時期는 요원한 것이 아니겠는가, 悲觀論을 展開하고자 하는것은 아거나 그같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말할뿐이다.

4半世紀 동안 南과 北이 異質的인 體制와 思想속에서 歷史生活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對話와 交流問題에 對한 相互間의 認知와 期待의 差異가 크다함은 言及할 必要가 없을 줄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赤十字會談代表와 記者들의 往來 圓亨을림픽에서의 南北體育人들의 接觸과 體育交流에 關한 對話, 日本 奈良

에서의 高松塚古墳에 관한 南北學者 共同研究의 推進 等은 對話의 場이 交流에의 길로 直結될 수 있는 可能性을 시사한 것이며 7.4 共同聲明이 無言中에 實踐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交流는 體制와 무관한 非政治的인 分野로부터 단계적으로 試圖하여야 할 것이며 그 中에서도 특히 對話의 根本問題를 處理하고 統一의 原理를 이끌어갈 수 있는 學術交流가 가장 先行되어야 할 줄안다.

政府의 基本方向 亦是 이러한 단계적 原則에 의하여 1 段階로서 學術, 體育交流를 推進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學術의 어느 分野에서 부터 對話와 交流가 始作되어야 할 것인가?

學術分野에서도 政治的 性格이나 이데오로기가 稀薄한 分野가 우선 손꼽힐 것이다.

自然科學이나 醫學 等の 分野에 있어서는 政治的 性格은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南韓이 北韓보다 先進하고 있기 때문에 交流로서의 可能性은 稀薄하다고 보며 그 必要性에 있어서도 切實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勿論 自然科學者의 對話와 交流를 통하여 그 폭을 넓힐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도 더 對話와 交流가 要望되며 可能性의 程度가 높은 分野로는 民俗學 또는 古考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政府에서도 自然科学, 人文科学, 社会科学의 段階로 区分하여 社会科学中 民俗学分野는 人文科学과 同一한 順位로 認定하고 있다.

大概 風俗習慣이라는 것은 交通機關의 發達에 正比例하여 漸次로 單一化하는 것이며 또 물과는 反比例로 높은 標準으로 高度를 變更하는 것이다.

이것은 言語에도 同一한 現象이나 風俗과 習慣에는 所謂 流行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그의 變化를 左右하는 重大한 核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좀더 昭詳하게 말하면 그 變化에 있어서도 外形的인 것은 그 度数가 甚하고 內在的인 것은 大端히 低率이다. 다시 具體적으로 말하면 衣服 藝術같은 것은 前者에 屬하고 宗教的인 民間信仰같은 것은 後者에 屬한다.

本 研究에서는 스티스 톰슨(S. Thompson)의 談話分類(Arue-Thompson Types)와 韓國 文化人類学会 編인 韓國民俗資料分類票에 根拠를 두고 便宜上 分類 論하기로 한다.

이러한 項目別 分類인 1) 一般民俗学, 2) 社会構造, 3) 慣習, 4) 信仰, 5) 技術 및 道具, 6) 衣食住, 7) 民俗藝術 및 娛樂 8) 구비전승 등을 基礎로 8.15 解放 以後 南北韓 民俗藝術의 現況과 特性을 比較 檢討하고 特히 北韓 社会構造下에서의 文化 類型에 依한 民俗藝術의 變遷過程과 pattern을 記述함으로써 交流의 可能性과 內容을 檢討하고자 한다.

II. 民俗芸術交流의 目的

民族文化의 發展을 爲하여 單一文化圈의 形成과 學者와 研究資料의 交換 및 共同研究體制의 推進 등으로 北韓知識人의 自由化의 促進 등 많은 目的을 가질 수 있으며 具體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南北韓 單一文化圈의 形成을 위한 目的
 - 1) 異質化된 文化構造의 同質化와 自由化의 模索
 - 2) 南北韓 學者의 相互 親善交流 및 單一研究 또는 共同研究體制의 推進
 - 3) 民族文化의 傳承發展과 民族史의 體系化 등을 들수 있으며,
2. 北韓學者의 開放化 誘導를 위한 目的으로는
 - 1) 北韓 學者의 御用性에서 解放
 - 2) 맑스·레닌思想 및 金日成 唯一思想의 矛盾性에 對한 認識의 誘發
 - 3) 西改思想 및 學問에 對한 客觀的 認識의 契機를 마련
3. 北韓에서의 새로운 知識階層의 形成을 위한 目的으로는
 - 1) 北韓知識人의 自由化運動 誘導

2) 北韓知識人의 自律性 抬頭 促求 等이며

4. 끝으로 南北韓 緊張緩和의 手段으로 活用할 수 있는 目的이 있으며,

1) 南北韓 緊張緩和의 精神的 手段

2) 民族的 總和를 이루어 「이데오로기」의 感情的 對立을 止揚할 수 있으며,

3) 非政治分野 交流의 段階的 發展手段이 될 수 있다는 點 等を 들 수 있다.

Ⅲ. 南北韓 民俗芸術의 比較

1. 韓國의 民俗芸術

가. 一般民俗學

民俗學은 한 民族의 庶民生活에 對한 眞摯한 科學이다.

R. 바이스가 庶民生活을 論及했을 때 그 概念은 庶民層의 生活樣式을 規定하는 意味를 갖는다.

庶民生活을 對象으로 하는 民俗學은 庶民層과 直結되는 「現在學」이다.

韓國의 民俗學은 孤立된 한 分野로 發展해 왔다기 보다는 다른 學問의 보조 역할로서 生成研究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的인 側面에서 또는 國文學的인 側面에서 한 보조의 役割을 擔當해온것이 事實이었다.

그러던 것이 1958年 文化人類學會의 創設과 1969年 任東權에 의한 韓國民俗研究會의 創刊으로 이 分野의 學問도 하나의 獨立된 分野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勿論 그 以前에도 國語國文學會에서는 한 分野로 民俗學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解放後 韓國民俗學은 그 동안 이룩해 놓은 日人 秘葉隆 高橋後 今西 鞆과 우리나라의 崔南善, 孫晉泰, 宋錫夏, 金台俊, 金在喆 등에

의하여 그 基盤이 다져진 것은 事實이다.

解放과 아울러 韓国民俗學界에 重要한 業績을 概觀해 보면 崔常壽는 1956年 韓国民俗學會를 創設하여 기관지 '民俗學報'를 창간하였다.

參考로 第一輯의 內容中 特記할 것은 韓民族의 說話 허수아비考, 꼭두각시, 인형극 研究와 제 2집의 白鳥處女傳說의 比較研究, 韓國口伝民謡研究, 韓國의 세시 풍속 등을 들 수 있다. 特히 崔常壽는 韓国民俗學 中興에 大대한 功로자라고 볼 수 있다.

1956~1957年間에 結成된 원숭이, 닭, 내고장 傳說 京畿道傳說 등의 口伝說과 民담의 採錄 京畿道誌에 記載한 俗談과 수수꺼기 연극에서의 꼭두각시 語源考, 산대가면극의 內容, 진주오랑대가면극 遊藝競技에서 웃놀이 활쏘기 춧다리씨름, 농악, 年中行事에 이르기까지의 多方面의 研究 및 調査報告는 그 功로가 매우 크다고 본다.

다음 孫晉泰의 遼北以前의 功로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그의 韓国民俗說話 研究를 비롯한 聖人노리푸념과 明노리 푸념 등을 기억할 수 있다. 任東權은 特히 民謡關係에 関心을 集中하여 韓国民謡를 集大成한 功로는 자못 큰 것이다.

1949年 부터 始作한 民謠研究를 集大成하여 놓은 것이 그의 朝鮮民謠研究이다.

金思燁의 俗談論(1953) 宋錫夏의 韓国民俗考(1960)를 비롯한 方鍾鉉의 세시풍속집(1946), 崔常壽의 韓國의 세시풍속(1960)은 解放後 1960년까지의 重要 業績이다.

1960년에 접어들면서 韓國의 民俗學도 各己 細分化되어 社會 構造 관습 信仰, 技術 및 道具, 衣食住, 民俗藝術, 娛樂, 구비전승 등의 전공 分野別로 細分化되었다.

韓國文化人類學會에서는 1967年 '韓国民俗資料分類表'를 作成하여 實際 文獻上 정리채록에 一貫性을 期하기 爲하여 資料表를 만들어 내었고 이에 따라 文化財管理局에서 편한 韓国民俗綜合報告書(全南)는 이러한 分類에 의하여 調査 編輯된 것이었다. 社會構造는 그동안 李光奎에 의한 研究物이 있다. 特別 韓國의 社會構造와 文化類型 그리고 '文化人類學'은 代表的인 業績이다. 技術 및 道具에는 金光彦을 들 수 있다.

그는 全南地方 民俗綜合報告書에서 韓國 産業技術에 관한 道具를 集大成하였으며 한국 농기구관계의 調査도 괄목할만하다. 衣, 食, 住에 있어 尹瑞石의 韓國食品史와 金東旭 石宙善의 服裝史關係와 住宅에서의 金正基, 金光彦 등을 들 수 있다.

民俗藝術, 오락에서는 李杜鉉에 의한 韓國演劇史의 總整理(1966)

와 韓國 세시풍속의 研究(1971)는 綜合的인 決定的 業績物이라 보겠다.

구비전승에서 孫晉泰 以後 張德順, 金烈圭 등을 들수 있다. 特히 張德順의 韓國說話文學의 研究는 說話의 小說化過程을 밝힌 것으로 주목이 되며 民俗學과 國文學의 關係를 밝힌 論文이다.

아울러 金烈奎도 韓國文學과 民俗學의 關係를 서로 관련지으면서 特히 祭儀過程에다 重點을 두어 研究를 試圖했던 것이 주목된다.

구비전승관계로 제주에서의 金聖獻, 玄平考의 業績도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張德順 등에 의한 口碑文學概說도 業績이다. 끝으로 한가지 添記할것은 韓國의 民俗에 관한 調查報告書가 各 地方別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文公部에 의한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가 그 代表的인 것이고 6 個年間に 걸친 成均大의 安東文化 調查報告書와 各道의 地方誌 그리고 金泰坤의 黃泉 巫談研究를 비롯한 民俗學關係의 資料整理 柳增善의 嶺南의 伝説 崔喆의 嶺東民俗誌 등도 地方民俗資料를 集大成한 業績들이다.

文化人類學會의 研究機關誌가 5 輯까지 나왔으며 民俗學會에서도 5 輯을 내고 있다.

또한 國語國文學을 비롯한 國語學 關係의 論文輯과 金泰坤에

의한 원광대 民俗學研究所의 공로도 特記할 일이다.

나. 慣習(세시풍속)

歲時風俗이란 해마다 一定한 時期가 오면 관습적으로 反復하여 舉行하는 特殊한 生活行爲 즉 週期傳承의 儀禮的인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名節日은 正月元日, 立春, 上元, 二月朔日, 三月三日 寒食, 四月八日 五月端午, 六月 流頭, 三伏, 七月七夕, 八月秋夕 九月九日 十月午日 十一月 冬至, 十二月 臘亨, 除夕 등이다.

이중에서 元日과 立春과 같은 달력의 起點이나 三月三日, 五月五日 七月七日 九月九日과 같은 重日과 其他 上亥 上子日 卯日己日行事 등 干支와 陰陽思想에 의하여 정착된 것으로 보여지는 節日들은 역시 大陸文化의 影響이라고 보겠다.

이 外에는 地方의 洞祭 또는 部落祭 点年 祈年 行事 等도 重要한 行事들이다.

이 歲時風俗에 관한 最近의 綜合的인 研究로는 李杜鉉의 韓國歲時風俗의 研究(1971)를 들 수 있다.

본 研究는 지금까지 歲時風俗에 관한 諸般研究를 集大成한 것

이다.

李杜茲은 本 研究에서 우리나라 歲時風俗의 究明은 나아가 우리나라 文化의 本質을 究明하는 作業의 一環이다. 現在까지 傳承되어오는 民俗文化의 하나인 歲時風俗의 地方別 差異는 밝혀졌으며 또 文獻에서 過去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歷史적으로 究明함으로써 그 變遷過程을 밝혀서 核心的인 것을 찾아본 것이다.

한편 우리 民俗社會의 生活과 農耕儀禮的인 歲時風俗 등에 大陸으로부터 영향받아 同化시킨 것도 많고 또 日本에서 傳承되는 年中行事中에는 우리의 것과 同一 系統의 것으로 生覺되는 것도 많아 이러한 隣接地域과의 歲時風俗의 比較研究도 絶실한 課題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國內 地域別의 보다 intensive한 調査 研究의 누적으로 精밀한 歲時風俗誌가 作成되고 그러한 民俗誌의 歷史民俗的인 國內 研究成果가 進전됨에 따라 비로서 相互 影響關係를 갖는 隣接地域과의 歷史民俗學的研究의 擴大도 可能할 것이다.

다. 民間信仰

韓國의 民間信仰을 要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 民間信仰은 大別하여 家庭信仰과 部落信仰으로 볼 수 있다.

7. 家庭信仰

1) 諸神信仰

- ① 城主
- ② 삼신(三神, 産神)
- ③ 他神과 영동할머니
- ④ 家庭堂과 個人堂
- ⑤ 告祀와 伏祭

2) 禳 求福方法

- ① 符 籙
- ② 山神과 七星에게 비는 것
- ③ 客鬼 불림
- ④ 굿을 하는일
- ⑤ 占을 치는일

3) 諸予言方法

4) 職業人— 玉皇上帝, 北斗七星, 太白山神

5) 通過儀禮와 家庭信仰

8. 部落信仰

1) 서낭

2) 서낭祭

3) 大関嶺城隍祭

1972年 車基善 先生은 韓國 民間信仰의 形態와 그 特性에서 韓國 民間信仰의 여러 모습을 具體적으로 整理했다.

韓國人の 生活바탕에는 어떠한 宗教보다도 民間信仰이 가장 많이 普及되어 있으며 그것은 住民들의 生活에 있어 比例적으로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다.

1 個洞里가 보여주는 樣相으로 미루어 宗教에 관한 한 韓國의 農村社會에서는 民間信仰이 支配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어느 宗教도 마찬가지지만 民間信仰도 學問의 研究對象이 되려면 여러 側面에서 그 性格 내지 機能을 究明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특히 宗教的인 面에서 民間信仰을 볼때는 發展하지 못하는 宗教도 볼 수 있다.

民間信仰은 믿는 사람은 儀式과 呪術的인 方法을 따르는 結果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神보다는 人間이 民俗信仰의 中心이 되어 神앞에서 儀式을 行하는 것은 利益을 追求하는 方法으로 生覺되며 이것이 結局 神을 숭배한다는 精神보다는 人間의 切迫한 慾求를 만

족 시키려고 神을 利用하는 精神이 우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精神은 變화諸方法으로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지만 諸神信仰亦是 마찬가지이다.

現代文化가 発達함에 따라 民間信仰은 價値가 없는 迷信으로 生覺되어 점차 사라질 우려가 있다.

萬一 이 民間信仰이 사라질 경우 社會生活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되며 그 공백을 메꾸어 줄만한 信念 내지 宗教가 없을 경우 그것은 社會的으로 심각한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韓國 農漁村社會에 現在하는 民間信仰의 性格과 그것이 갖는 社會的인 機能을 보다 깊이 研究하는 것이 重要한 課題로 남아있다.

특히 文相熙 車基善은 宗教的立場에서 그것을 民間信仰과 連關시켜 韓國 新興宗教의 계보와 基本敎理에 관한 重要한 問題點을 提示했으며 元光大學校의 民俗學研究所의 公로를 특히 기억해 둘 일이다.

끝으로 韓國 民間信仰關係의 重要研究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 宅 圭, 韓國 部落慣習史, 1970.

任 東 權, 韓國 原始宗教史, 1970.

張 亨 根, 韓國의 神堂形態考, 1964.

李 杜 鉉, 高廠邑 五巨里堂山, 1968,

" 莞島邑 長佑里堂祭, 1968,

- 金 泰 坤, 韓國神堂研究 1965
- " 서낭堂 信仰研究, 1970
- 조 지 훈, 泉石壇神樹, 堂집 神仰研究 1963
- 崔 吉 城, 扶安堂山, 1969
- " 民間信仰의 構造와 役割, 1972
- 泰 聖 麒, 本 仰堂의 信仰과 堂神의 類型 1972
- " 제주도 神堂과 堂神, 1970
- 金 泰 坤, 韓國巫俗의 系統, 1970
- 康 竜 樞, 釜山地方의 別신굿考, 1970

라. 技術, 道具

韓國産業技術 및 道具 工藝 관한 民俗的 側面에서의 調査는 전혀 황무지다. 1969年 한국 民俗綜合 報告書에 金光 彦에 의한 것이 가장 주목할만한 業績이다.

다시 1970年 文化財管理局에서 『韓國의 農機具』를 金光彦의 調査에 따라 출간했다.

이 報告書는 투망식 調査法에 의한 全國 14個所의 農村을 對象으로 調査한 것이다.

본 調査者는 農機具를 가는 연장 삶는 연장 씨뿌리는 연장

탈곡 및 가두내는 연장, 물대는 연장, 거두는 연장, 터는 연장, 말리는 연장, 고르는 연장, 운반연장 其他 연장 등 16個로 分類하여 115個를 다루었다.

이것을 다시 이름 형태 기능 수명 값, 調査者 및 被調査者 등으로 나누어 說明했다.

또한 430個의 도판을 삽입하여 立体的으로 提示해 두고 있다.

이 調査報告書는 1925年 朝鮮總督府 調査資料인 "朝鮮의 再來農機具報告書"에서 다른 77個의 農機具에 대하여 그 種類가 30余個 늘었다.

또 전기조사가 水原을 中心한데 비해 本 調査는 全國的인 規模이다.

그런面에서 本 調査는 最近의 農機具調査에서는 큰 收穫이나 그 以外 本器와 手工品 등의 綜合的인 文化財調査도 아울러 있어야 겠으며 이의 産業化 내지 美学的 側面에서의 研究도 있어야 하겠다.

마. 衣, 食, 住

1) 衣

韓國의 服飾史는 아직 미개척 分野로 남아 있다.

日政때 李如星의 「朝鮮服飾考」가 있으나 古代에 限하였고 朝鮮總督府의 朝鮮의 服裝은 1930年代의 民俗學的報告로서 貫中한 것이지 史的인 面에서 언급하지를 않았다.

解放後 金東旭의 「李朝前期服飾研究(1963)」가 韓國服飾史(1970)는 韓國 복식 관계를 알아보는데 重要한 文獻이다.

韓國服飾의 特色은 우선 韓國의 氣候가 亞寒溫帶에 걸쳐 겨울과 여름의 氣溫差異가 分明하여 이에 따라 衣次는 皮衣로부터 綿紬, 木綿, 麻葛에 까지 季節에 따라 갈아 입었고 그 구조 역시 더위와 추위에 알맞게 衣, 袴, 裳으로 갈라져 北方胡服系統이다.

- ① 上古는 騎馬에 알맞게 馬上衣로서 袴褶이 基本構造도 된다.
- ② 穴居에 알맞게 皮衣도 있었다.
- ③ 溫突胡跪生活에 알맞게 아랫바지가 넓었다.
- ④ 솜바지 저고리가 一般化된 反面에 襯衣를 입지 않았으니 이는 溫突生活의 結果다.

- ⑤ 南方近倭地方에 文身이 존재한다.
- ⑥ 南北을 통하여 바지에 대님을 달았고 皮靴를 신었다.
- ⑦ 身体가 全体的으로 被覆되게 되어 있다.
- ⑧ 吐手같은 亜寒温帶에 속하는 保護用具가 存在하였다.
- ⑨ 高句麗에 甲冑, 頸甲, 胫甲 등 상당한 武具가 발달되었다. 또 衣服이 社会的 標識에서 發達하였다는 說에 따르면,
- ⑩ 高句麗 新羅의 金銅冠 高句麗의 挿烏羽冠은 샤이먼의 標識이며 社会的 觀念의 표상이다.
- ⑪ 연지근지를 적는것은 男女關係의 某種 표상이다.
- ⑫ 上古時代의 襪의 金장에 따른 階級的 父母俱存 有夫의 표상이 있다.
- ⑬ 三国時代 有官者의 階級的表象으로서의 襪袴의 術
- ⑭ 男子의 鎡帶 腰飾샤이먼의 要素가 있다.
허영과 사치 치장 등의 見地에서
- ⑮ 中国服制衣次의 채용
- ⑯ 女服에 있어 中国式 녀울의 채용
- ⑰ 男子笠制의 變遷과 그것이 너무나 華사했던 점
- ⑱ 女子의 頭飾 頸飾 耳飾의 發達 高句麗 치마의 채용,
高麗에서 치마를 몇겹으로 많이 입은점.

韓國服飾을 史的인 면에서 본 金東旭(1970)의 韓國服飾史는 우리나라 服飾을 上古 唐制服飾의 영향기 高麗의 服飾 朝鮮의 服飾 開化期の 服飾으로 크게 五分하여 說明한다.

다만 日政때와 解放後의 服飾의 變貌過程에 관한 研究는 尙무하다.

全南地方 韓國民俗調査 報告書에도 나타났드시(1969) 現在 韓國의 服裝構造는

① 平常服

夏服 전통적인 服飾을 갖추는 층에서는 아직도 모시두루막에 갓을 쓴 老人이나 白色치마저고리를 입는 老婦도 있으나 最近에는 化學纖維系統의 옷을 입는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바지에 남방, 여자는 짧은 스카트에 부라우스 또는 어린이는 짧은 쓰봉에 南方셔츠 또는 런닝셔츠를 입는다.

冬服은 男子는 솜바지저고리에 조끼를 입으나 젊은 층은 양복 바지다.

그외에 잠바나 쉐-타를 着用, 여자들은 털셔츠나 쉐-타를 속옷에 바쳐 입는다.

간단한 오바나 코트를 걸에 입는다. 特殊衣裳으로 놀이의상, 굿놀이옷 광대의상 등이 있고 혼례복, 상복, 壽衣와 그리고 각종

制服이 있다. 石宙善의 文化財管理局調查報告書(1964, 1965)와 日刊誌 등에 發表한 時評的 이 관계 논설문을 아울러 참조 바람.

2) 食

오늘날 韓國의 食生活은 都市나 農漁村 貧富에 따라 엄청난 差異를 보이고 있고 실제 그 양태가 多樣하게 변모되었다.

이런 현상은 全國 어디서나 볼 수 있다.

食事形式은 밥상, 국수상, 죽상, 미음상, 술상, 교자상, 큰상, 고임상 등으로 나누고 음식을 차리는 상과 받는 사람 수효에 따라 의상, 원상, 각반, 유반, 회전반, 두리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식사는 하루 세 번하는데 아침과 점심, 저녁을 구별없이 같이 하는 傾向이 많고 그것도 農村과 都市에 따라 다르다.

黃憲性의 全羅南道 民俗調查報告書에서 밝힌(1969)것을 보면 韓國飲食을 一般的인 모습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

食生活의 개관 床차림(出産, 婚禮, 回甲, 올베심리, 할매조상단지 조왕중발 茶禮, 喪事, 告祠, 薦新 名節과 時食)食品의 材料 鄉土料理, 禁忌食品(임신, 관습)

廚房 器具 食品 등으로 分類하여 說明함. 그리고 尹瑞石의 韓國食品史(1970)는 이 관계의 重要한 研究業績이다.

3) 住

韓國의 住居를 史的 측면에서 연구시도한 業績으로는 解放後 金正基(1970)에 의한 '韓國住居史'다.

본 論文은 先史時代의 住居 古代住居 近世住居로 나누어 주로 李朝末까지 韓國住居를 總括했다.

미흡한 점은 解放後 오늘날까지의 住居問題인데 이 方面의 研究는 아직 未개적 段階에 있다.

몇가지 韓國住居에 대한 問題를 제기해보면,

우리나라 住居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말할것도 없이 李朝의 住宅이다.

우리는 李朝住宅이 가지는 溫和하고 부드러운 解感과 아늑한 분위기를 잊을 수 없다.

그러나 現시점에서 볼때 우리들의 住宅觀에 비추어 李朝時代의 住宅을 보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不協和音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必要 以上の 巨大한 題目들 서민주택에서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中流 以上の 住宅에서 느낄 수 있는 建物の 機能과 動線에 대

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않은 住宅의 평면구성 등이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家父長의 절대권력하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家族制度아래서 住宅建物の 合理的인 평면구성보다 그의 권위와 위품을 과시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要求가 되었고 또 그들 家父長의 日常生活의 대부분의 용무가 그 使役人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李朝住宅이 韓一合併以後에도 一部에서 日本의 住宅影響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대세에 큰 變化가 없었고 다만 새로 導入된 建築資材인 洋灰나 유리 등이 우리나라 住宅에 使用된 정도였다.

解放後 특히 6.25 事變以後 급격히 우리나라 國民들의 生活樣式이 크게 변모됨에 따라 在來의 坐式生活에서 椅子式 생활양식이 一般家庭에 까지 浸透되어 이 두양식을 家庭生活에서도 併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起居生活의 變化는 당연히 住宅構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거기에다 당국의 住宅政策의 方向이 拍車를 加하여 이른바 文化住宅이라고 불리는 建築이 都市는 勿論 地方에까지 보급되기 시작했다.

住宅은 外形은 洋式 또는 準洋式이며 内部는 在來式인 온돌방

과 椅子式居室도 使用되는 마루방이 마련되고 침실생활도 상당히 보급되고 부엌도 改良되어 소위 立式 부엌이 많이 생겼다.

房의 넓이도 훨씬 넓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더하여 住宅의 모자 람을 解決하기 위하여 아파트 建立을 서둘르고 있다.

그리고 김광연의 慶北地方의 고가옥(1970) 江原道 산간가옥 4棟(1972)는 고가옥연구의 기억할 만한 글이다.

바. 國碑傳承

1) 民謠, 說話

民謠에 관한 本格的 蒐集과 研究가 試圖된 것은 解放以 後의 일이다.

1948年 崔常壽, 方鍾鉉 등에 의한 『朝鮮民謠集成』과 張師훈 成慶麟의 『朝鮮의 民謠』(1948), 奏聖麒의 『제주도민요(1958)』 는 韓國民謠 集成의 最初 業績으로 기억될만하다.

이후 任東權의 『韓國民謠集(1961)』과 『韓國民謠史』는 現 存民謠를 集大成하여 놓은 重要한 資料인 同時에 研究物이었다. 이것은 以前의 高鼎玉의 朝鮮民謠研究(1949)가 큰 주축이 된 것만은 事實이다.

任東權은 韓國民謠를 蒐集整理하는데 30余年 동안 힘을 기우

렸으며 그의 韓國民謠試論(1949)을 비롯한 민요의 鄉土的考察(1957), 韓國民謠의 形式과 韻律(1957), 民謠의 呪術性(1959), 民謠採集史(1961), 서집살이謠考(1963) 등의 論文은 이 당시 民謠研究의 기억되는 業績이라고 하겠다.

金榮敦은 濟州道에 있으면서 濟州道에 散在한 民謠를 一次로 蒐集하였고 아울러 이를 整理하여 몇건의 論文을 내었다.

그 중에서 濟州道民謠에서의 不敗信念(1964), 濟州道民謠에서 본 어머니사랑(1961), 濟州道民謠學의 오늘과 내일(1962) 등이 기억된다.

그 밖에도 丁益燮의 黑山島民謠小考(1962), 巨文島民謠考(1965) 등이 있으며 成均館大, 서울大, 高麗大, 梨花女大 등에서 의 각 地方民謠의 채록도 民謠整理에는 큰 구실을 担当했다고 본다.

說話의 채집에 큰 힘을 들인 사람은 崔常壽다. 朝鮮地名伝説集(1947)을 비롯하여 경주의 고적과 伝説(1946), 朝鮮民間說話集(1949), 조선구비전설집(1949), 韓國民間伝説集 등 수많은 民間說話를 모았던 것이다.

같은 說話의 集成으로는 각 地方의 道誌와 地方誌를 들 수 있으며 最近 江原日報社의 江原文化叢書로 計劃中인 太白의 情緒는 그런 意味에서 볼때 한고장의 說話를 集大成하는데는 중요한 業

續이라 하겠다.

柳增善의 '嶺南의 伝説(1971)은 嶺南全域에 걸쳐 300余種의 說話를 모은 것이다.

그리고 全南 全北 慶南에 걸친 民俗綜合 報告書에도 그 고장 說話를 集本시킨 것들이다.

1960年代에 이르기까지 說話에 對한 文學的 내지 民俗學的 研究로는 별로 진전이 없었다.

다만 孫晉泰의 '朝鮮民族說話의 研究(1949)'가 큰 胎動을 이루었던 것이다.

1960年代에 오면서 張德順은 文獻 所在說話를 分類하여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世宗地理志, 奎章閣邑誌의 諸說話를 分類整理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주축이 되어 '韓國說話文學의 研究(1970)'와 國碑文學概說(1971)을 보게 된 것이다.

說話의 研究에는 人類學的 民俗學的, 社會學的, 文學的, 宗敎學的 文化史的 方法 등 여러 方法이 있다.

孫晉泰는 民族說話를 文化史的 方法을 中心으로 하여 研究했다. 이것은 說話가 어느 곳에서 發生하여 어느 時代에 어떤 까닭으로 어느 곳으로 傳파하였는가의 經路를 밝힌 方法이다.

또한 그는 直接 說話를 蒐集하는 현지답사와 그것을 토대로

연구하는 理論的 研究를 經營한 斯界의 선구자였다.

이에 比해 張德順은 文獻說話의 分類를 통해 說話와 文學化된 文學과의 關聯性을 考察한 것이다.

즉, 說話文學의 意義와 方法 民謠의 文學的構造 說話의 小說化 과정 등은 그의 좋은 例라고 볼 수 있다.

說話의 小說化 問題로 해서 1950 ~ 1970 은 크게 논의된 時期였다.

金東旭의 春香伝說話考(1954), 張德順의 沈潛伝, 興夫伝 등의 諸論文, 이 밖에 印權煥의 '토끼전근원 說話研究(1967)', 崔喆의 '李朝小說主人公의 出生담考(1968)', 宋錫夏의 '古代小說에 나타난 主人公의 Supernatural Birth에 관한 研究(1967)' 등은 근원 說話의 확장이며 史在東의 '沈潛伝 연구서설(1971)'은 근원 說話考를 추축한 論文이다.

曹福雄은 說話-民담을 모티브에 따라 index 를 작성하였으며 그의 '韓國說話의 研究(1969)'는 勿論 韓國動物담 index (1972)는 說話分類學의 一種이라고 보겠다.

2) 方言

國語, 方言學의 出發은 小倉進平和 같은 獻身的 學者로 해서 꽤 유리한 基盤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解放後 國語方面의 研究는 오늘날까지 甚 散漫하고 低
調한 形便이다.

그것은 大部分 方言學을 전공으로서가 아니라 余他의 分野, 특히
國語의 歷史的 研究(특히 音韻論)의 한 補助分野로서 다른데
研究된 듯 싶다.

그런 中에서도 方鍾鉉, 李崇寧이 方言에 기울인 努力은 國語
方言學 再興에 礎石이 되었고 崔鶴根, 康允浩, 文孝根, 李基文, 李
翊燮, 李秉根, 張泰鎮, 최현배, 허응, 玄平孝(以下 參考文獻 參照)
을 비롯한 몇몇 學者들의 노력에 依하여 계승 발전되어 왔다.
最近에 이르러 梨大, 成大, 延大, 檀大, 서울文理大 등에서 學生들
에게 現地作業(Field Work) 訓練을 活潑히 시키고 있는 것은
그 一例다.

특히 梨大의 康允浩는 스스로 記述言語學의 方法 위에서 音韻
方面의 큰 勞作을 내면서 꾸준히 學生들을 훈련시켜 그 報告書
를 내었다.

成大에서도 安東地方을 中心해서 6余年間 集中調查하여 두 차
례의 報告書(1967, 1971)를 내었다.

그리고 이것의 影響을 입어 方言學碩士로 車賢美(1966), 金
次均(1965), 任祖(1965), 李秉根(1968)이 배출되었다.

國語方言의 활기는 各 地方大學에 의하여 자기 고장 方言에

대한 研究活動에서도 찾을 수 있다.

濟州道에선 박용후(1960), 玄平孝(1962)가 방대한 語휘集을 냈고 金榮敦(1956-7)도 어휘를 整理했다.

玄平孝는 그 이외에도 계속 研究했고(1963, 1964 등) 金公七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全南팀으로선 李敦柱(1966, 1969), 洪淳鐸(1963, 1969)이 주로 地名研究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 以前에 한글학회(1966, 1970)의 좋은 業績이 있다.

張泰鎭(1968, 1969)도 特殊語 整理에 힘써 오고 있고 慶北팀은 慶北方言圈을 兩分하는 일이 試圖되었고(千時權 1965, 李基白 1969) 大邱方言의 語휘가 全在昊(1965, ~7)에 依해서 整理되었다.

徐在克(1967, 1969)은 文獻語를 方言에서 確認해 가는 일을 힘써 왔다. 慶南팀은 金永松(1963), 李炳銑(1967, 1971)은 量的으로는 적으나 技術的 立場에서 착실한 소산을 내었다.

方言調査는 그 고장 사람에게 의하여 되는 利點은 많다. 따라서 地方팀들의 위와 같은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다. 한가지 덧붙여서 李翊燮의 全北 東北部(1970)와 嶺東(1972) 그리고 文孝根의 大邱方言의 高底(1962), 嶺東方言의 鬮(1971)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와 병행해서 各 大學에서는 方言學 講義도 強化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解放後 國語方面의 研究는 오늘날까지 甚 散漫하고 低 調한 形便이다.

그것은 大部分 方言學을 전공으로서가 아니라 余他의 分野, 특히 國語의 歴史的 研究(특히 音韻論)의 한 補助分野로서 다른데 研究된 듯 싶다.

그런 중에서도 方鍾茲, 李崇寧이 方言에 기울인 努力은 國語 方言學 再興에 礎石이 되었고 崔鶴根, 康允浩, 文孝根, 李基文, 李翊燮, 李秉根, 張泰鎮, 최현배, 허응, 玄平孝(以下 參考文獻 參照)을 비롯한 몇몇 學者들의 노력에 依하여 계속 발전되어 왔다. 最近에 이르러 梨大, 成大, 延大, 檀大, 서울文理大 등에서 學生들 에게 現地作業(Field Work) 訓練을 活潑히 시키고 있는 것은 그 一例다.

특히 梨大의 康允浩는 스스로 記述言語學의 方法 위에서 音韻 方面의 큰 勞作을 내면서 꾸준히 학생들을 훈련시켜 그 報告書 를 내었다.

成大에서도 安東地方을 中心해서 6餘年間 集中調査하여 두 차 베의 報告書(1967, 1971)를 내었다.

그리고 이것의 影響을 입어 方言學碩士로 車賢實(1966), 金 次均(1965), 任祖(1965), 李秉根(1968)이 배출되었다.

國語方言의 활기는 各 地方大學에 의하여 자기 고장 方言에

대한 研究活動에서도 찾을 수 있다.

濟州道에선 박용후(1960), 玄平孝(1962)가 방대한 語휘集을 냈고 金榮敦(1956-7)도 어휘를 整理했다.

玄平孝는 그 이외에도 계속 研究했고(1963, 1964 등) 金公七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全南팀으로선 李敦柱(1966, 1969), 洪淳鐸(1963, 1969)이 주로 地名研究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 以前에 한글학회(1966, 1970)의 좋은 業績이 있다.

張泰鎮(1968, 1969)도 特殊語 整理에 힘써 오고 있고 慶北팀은 慶北方言圈을 兩分하는 일이 試圖되었고(千時權 1965, 李基白 1969) 大邱方言의 語휘가 全在昊(1965, ~7)에 依해서 整理되었다.

徐在克(1967, 1969)은 文獻語를 方言에서 確認해 가는 일을 힘써 왔다. 慶南팀은 金永松(1963), 李炳銑(1967, 1971)은 量的으로는 적으나 技術的 立場에서 착실한 소산을 내었다.

方言調査는 그 고장 사람에게 의하여 되는 利點은 많다. 따라서 地方팀들의 위와 같은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다. 한가지 덧붙어서 李翊燮의 全北 東北部(1970)와 嶺東(1972) 그리고 文孝根의 大邱方言의 高底(1962), 嶺東方言의 屯(1971)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와 병행해서 各 大學에서는 方言學 講義도 強化되었으면 한다.

崔鶴根을 대표집필자로 하는 國語方言學(1971)이 大學敎材用으로 나오기에 이르렀다.

解放後 方言研究는 의당 小倉과 河野六郎의 業績에 대한 綜合的 檢討, 批判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開拓者의 것으로선 너무나 당당했던 그들의 業績에 압도되었던 탓이었을까. 우리는 그들의 方法論을 無批判的으로 답습해온 감이 있다.

Pere Grootaers이 暗示한 바 있듯 小倉의 方法論은 西歐의 것을 影響받았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不透明한 것이 있는지 모른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에겐 弱點도 많았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답습되었던 것이다.

一例로 音聲轉寫에 있어서 音韻으로서 Pitch는 表示하지 않으면서 語中에서의 自動的인 變異音인 「g, d, r」등은 「k, t, l」과 区分해 적는다든가 名詞末子音 休止(pause) 앞의 形態로 정사하여 가령 빛(光)을 「pit」으로 전사함으로써 그것이 "빛" "빛을" 빛을, 밭을, 빌을" 중 어느 형태로 실현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그리하여 實在하는 方言間의 차이를 드러내 주지 못하는 不合理的 方式 등이 지금까지도 고질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方言學은 중국에 言語地圖의 作成을 主要課題로 한다. 우리는 이제 方言學의 이 主된 問題로 관심을 돌려 보아야겠다.

小倉의 資料集은 그 풍부성에도 불구하고 들쭉날쭉해서 전조사지점에서 다 調査된 項目이 많지 못하다.

이 빈칸을 메꾸는 일이 우선 要請된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 項目이 보여주지 못 했던 새로운 方言 特徵을 보여줄 새 項目을 補充해 나가는 일이 절실히 요망된다(이 일에 최현배 1957가 도움을 줄 것이다).

語휘 音韻에서만 편중되어 있던 관심을 文法面으로 돌릴 필요성도 강조될 법하다.

흔히 綜合的임을 표방하여 音韻, 語法, 語휘로 三分하여 論하는 경우에도 語法에서 語尾 몇개만 다루고 말기가 일쑤다.

이런 점에서 李崇寧(1957)이 제주도 방언의 形態論的 特徵을 체계화한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視野를 열어준 좋은 先例가 되었다.

이 점은 李秉根이 形態音韻論的 技術을 또는 構造方言學 및 生成音韻論의 토대위에서의 方言音韻의 體系化를 처음으로 보여준 勞作들(1968, 1969, 1970, 1971)에서도 같다.

이들 方言은 보다 심층적인 측면에서 구획지를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評價될만 하다.

方言의 어떤 한 特徵에 대한 論議로선 가장 진지한 것이었던 경상도 方言의 聲調에 대한 허웅(1954) 文孝根(1962, 1969)

崔鶴根을 대표집필자로 하는 國語方言學(1971)이 大學教材用으로 나오기에 이르렀다.

解放後 方言研究는 의당 小倉과 河野六郎의 業績에 대한 綜合的 檢討, 批判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開拓者의 것으로선 너무나 당당했던 그들의 業績에 압도되었던 탓이었을까. 우리는 그들의 方法論을 無批判的으로 답습해온 감이 있다.

Pere Grootaers이 暗示한 바 있듯 小倉의 方法論은 西歐의 것을 影響받았는지 조차 모를 정도의 不透明한 것이 었는지 모른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에겐 弱點도 많았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답습되었던 것이다.

一例로 音聲轉寫에 있어서 音韻으로서 Pitch는 表示하지 않으면서 語中에서의 自動的인 變異音인 [g, d, r] 등은 [k, t, l]과 区分해 적는다든가 名詞末子音 休止(pause) 앞의 形態로 正사하여 가령 빛(光)을 [pit]으로 전사함으로써 그것이 "빛" "빛을" 빛을, 받을, 밭을" 중 어느 형태로 실현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그리하여 實在하는 方言問의 차이를 드러내 주지 못하는 不合理한 方式 등이 지금까지도 高질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方言學은 중국에 言語地圖의 作成을 主要課題로 한다. 우리는 이제 方言學의 이 主된 問題로 관심을 돌려 보아야겠다.

小倉의 資料集은 그 풍부성에도 불구하고 들쭉날쭉해서 전조사지점에서 다 調査된 項目이 많지 못하다.

이 빈칸을 메꾸는 일이 우선 要請된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 項目이 보여주지 못 했던 새로운 方言 特徵을 보여줄 새 項目을 補充해 나가는 일이 절실히 요망된다(이 일에 최현배 1957가 도움을 줄 것이다).

語휘 音韻에서만 편중되어 있던 관심을 文法面으로 돌릴 필요성도 강조될 법하다.

흔히 綜合的임을 표방하여 音韻, 語法, 語휘로 三分하여 論하는 경우에도 語法에서 語尾 몇개만 다루고 말기가 일쑤다.

이런 점에서 李崇寧(1957)이 제주도 방언의 形態論的 特徵을 체계화한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視野를 열어준 좋은 先例가 되었다.

이 점은 李秉根이 形態音韻論的 技術을 또는 構造方言學 및 生成音韻論의 토대위에서의 方言音韻의 體系化를 처음으로 보여준 勞作들(1968, 1969, 1970, 1971)에서도 같다.

이들 方言은 보다 심층적인 측면에서 구획지를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評價될만 하다.

方言의 어떤 한 特徵에 대한 論議로선 가장 진지한 것이었던 경상도 方言의 聲調에 대한 허용(1954) 文孝根(1962, 1969)

鄭然 찬(1968) 등의 老作들도 方言區劃에 새 基準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우선 큰 뜻을 가진다.

方言研究는 人類文化學, 社會學 등 인접과학의 도움도 받으면서 또 그것들에 공헌될 바도 큰 것 같다.

社會集團間的 牽引力과 言語分化的 相異性을 다룬 李翊燮(1970)도 있거니와 言語分化的 言語外的 要因에 對한 考察은 여러 가지 興味로운 課題를 준다.

이 점은 社會方言의 境遇에서 특히 그렇다. 그동안 隱語에 관한 發表는 많았는데(金敏涉, 李崇寧, 姜信坑, 徐廷範, 張泰鎮 등) 것처럼 流動的이 아닌 例로서 同一地域의 農村과 漁村 또는 班村과 常村 사이의 言語分化的 더욱 보람된 일거리가 되리라 믿는다.

오늘날 方言研究에는 사명감을 갖고 刻苦하고 苦悶하는 科學者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하루 이를 어디 다녀와서 그곳 方言의 단편적 特徵 몇가지를 報告하는 일로 끝나는 安易主義는 이제 止揚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南北韓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調查地域의 制約이다.

하루 속히 統一되어 南北韓의 方言調查가 이룩되어 方言地圖가 作成될 때 國語學研究는 勿論 이에 딸린 余他的 文化人類系, 社會學系 分野에 큰 도움이 될 줄 믿는다.

< 參 考 文 獻 >

- 康允浩 (1959) 國語方言의 공시 음운구조기술과 그 분포 (東方學志 5)
- 康允浩 (1959) 國語方言에 있어서 두음경화어휘의 分布에 대하여 (한글 124)
- 康允浩 (1960) 濟州道方言에 있어서 共通語系語휘의 音韻體系와 그 環境에 대하여 (槩大, 韓國文化院叢書 1)
- 康允浩 (1969) 濟州道方言에 있어서 공동어휘의 音韻양상 (한글 126)
- 金公七 (1969) 方言의 研究 (한글 143)
- 金榮敦 (1956, 7) 濟州道 方言의 어미활용 (한글 119, 121, 122)
- 金永松 (1963) 慶南方言의 音韻 (부산대 국어국문학 4)
- 文孝根 (1962) 대구방언의 高底, 長短 (人文科學 7)
- 文孝根 (1969) 南部方言의 比較研究 (연세 논총 6)
- 徐在克 (1969) 경주방언의 副詞形- a 와 鄉札-良 (語文學 21)
성균관대 (1969, 1971) 안동문화권 學述調查報告書
- 李基文 (1972) 韓國의 國語學 (韓國學-현암사)
- 李敦柱 (1969) 全南方言에 대한 考察 (全南大 語文學論文集 5)

- 李秉根 (1970) 경기지역어의 모음체계와 非圓唇母音化
(東亞文化 9)
- 李秉根 (1971) 現代韓國方言의 母音體系에 대하여 (語學研究
7 권 2 호)
- 李炳銑 (1971) 慶南方言에서의 母音造花現象 (國語國文學 54)
- 李崇寧 (1957) 濟州道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東方學志 3)
- 李翊燮 (1970) 全北 東北部地域의 언어분화 (語學研究 6 권
1 호)
- 張泰鎮 (1968) 方向에 관한 風名, 어휘의 연구 (國語國文學 41)
- 張泰鎮 (1969) 潮水어휘의 研究 (亞細亞研究 36)
- 張泰鎮 (1969) 물고기이름의 어휘연구 (한글 143)
- 金在昊 (1965-7) 大邱方言研究 (慶北大 論文集 9)
- 千時權 (1968) 慶南方言의 母音體系 (단국대 國語學論集 2 호)
- 崔鶴根 (1959) 國語方言學序說 (精研社)
- ” (1962) 全南方言研究 (韓國研究院)
- ” (1968) 國語方言研究 (서울大 出版部)
- 최현배 (1936) 시골말캐기잡책 (정음사)

2. 北韓의 民俗藝術

어떠한 體制의 國家이건 政治와 文化는 分離해서 生覺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狀況이며 常識일 것이다.

특히 北韓의 政治體制에서 볼때 北韓의 民俗文化가 어떠한 內容을 가졌으며 어떠한 樣相을 取하고 있는가를 具體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民俗文化 亦是 北韓政治體제의 待女の 役割로서 體制 긍정적으로 維持變革 내지는 조작되었을 것으로 보며,

따라서 民族의 傳統的 民俗藝術은 體制라는 政治性 때문에 單一包括的인 形態와 機能으로 維持 發展되지 못하고 社會主義的 文化와 風習에 적합하도록 윤색 또는 變조되었다고 보겠다.

北韓은 그들의 民俗學을 "우리 人民의 文化와 生活風習의 民族의 特性을 研究하는 歷史科學의 한 部問으로서 民族文化 遺産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社會主義的 文化의 生活風習의 生成 發展을 촉진시키기 爲한 事業으로 巨大한 意義를 가진다" 라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社會主義的 文化와 生活風習이 바로 우리가 研究해야 할 內容이며 民俗文流의 큰 問題點인 것이다.

이러한 根拠와 社會主義的 假定에서 볼때 北韓民俗學을 體制的 變革과 生活史的 變化의 두가지 原因에 의하여 變遷 生成되었다고 보겠다.

1) 体制的 变革

民間信仰이나 慣習 그리고 民謡說話의 國碑傳承에 對하여는 共產主義社會體制에 適合하도록 美化 또는 潤色하여 非生産的이며 宗教的 信仰과 유사한 行事 또는 儀式은 一切 금지되었다고 본다. 또한 傳統的으로 兩班儀式에 속하는 民俗은 부르조아적이라 하여 完全히 廢起되었다고 보며 庶民層의 주변과 生活樣式을 規定하는 民俗놀이(?)의 分野를 考慮할 수 있다.

解放以後 勞働者層은 形成이 될 수 없었으므로 勞働者의 生活을 中心으로하는 民俗은 없다고 보며 巫俗은 原始信仰이라 하여 금지되고 또 實際로도 이에 對한 研究는 行해지 않고 있다. 仏敎的인 信仰이나 慣習은 宗教活動이 認定되지 않으므로 儀式的인 行事는 不可能하다고 볼 것이다.

宗教的인-특히 仏敎的인 다른 形態로 變化되었을 지라도- 行事나 儀式은 순수한 民俗놀이로서의 놀이 또는 休息에 意味를 부여한다면 繼續 維持될 수 있었을 것이나 非生産的인 巫俗으로만 認定한다면 전혀 容納되지 않을 것이다.

즉, 民間信仰 또는 慣習을 人類文化的 遺産으로 認定하느냐? 또는 迷信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이것은 各事例나 內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體制適應을 爲한 精神의 基盤과 人格의 形成을 爲하여 人爲的인 變革이 이루어

어저 왔음은 否定할 수 없다.

2) 生活史的 變化

庶民層의 生活樣式을 規定하는 것이 民俗學의 概念이라고 본다면 強要된 社會體制的 適應의 이면에는 民族的 歷史性속에 지켜온 感情的 情緒的인 庶民生活의 傳統信仰의 要素가 잠재 作用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衣, 食, 住를 中心으로 하는 民俗關係나 農漁村中心의 民俗 特別히 生命의 危險을 負擔하는 漁村에서의 儀式-비록 巫俗的일지라도-등은 가장 顯저하게 保存 維持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點에서 民俗藝術의 交流는 單純한 交流라는 意味보다는 잃어버린 傳統民族感情의 再結合이라는 意味로 파악하고 approach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民俗學은 農村勤勞者들의 文化와 生活風習을 中心으로 研究 發展되고 있다.

즉 北韓의 研究對象은 農業協同組合이며 그 組合員들의 生活과 또 거기서 자라나는 새로운 文化現象들이다.

그들의 協同化運動은 經驗的 段階로부터 大衆的 發展의 段階를 거쳐 協同化가 完成된 것이 1958年이며 이 各 段階는 協同組合 農民들의 文化와 風習 思想意識에서 巨大한 變革을 일으켜 온 것이다.

이러한 農村勤勞者들의 文化와 生活風習에 關하여 具體적으로 論해 보기로 한다.

가. 새로운 營農風習의 發展

ㄱ. 共同勞動의 生活化

社會經濟의 토대에서 發生한 社會主義的 農業協同化라는 根本的 變革에 기초하여 農民들 사이에는 또한 社會主義的인 새로운 文化와 風習이 生成 發展하였으며 그들의 思想意識과 精神도 덕적 풍모에는 一大 變革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오늘의 農民들에게는 勞動은 하나의 義務로 變하였으며 勞動은 組合의 計劃課題를 遂行하는 手段이며 組合의 共同蓄積을 增進하는 源泉으로 物質文化生活을 向上시키는 源泉으로 理解하고 있는 것이다.

勞動의 質과 量에 의한 社會主義的 分配原則은 組合員들의 勞動에 對한 情熱을 積極적으로 助長시키고 있는 것이다.

ㄴ. 營農의 技術的 革新과 農事力의 變動

農村經營의 協同化는 營農의 技術的인 革新, 先進 營農法의 보급을 가져왔으며 多收穫 運動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갔다. 이같이 北韓은 協同化와 產業 및 道具에 의한 農村勤勞者들의 文化와 風習에 對한 民俗化의 基盤을 다져온 것이다.

나. 農村文化建設과 의식주조건의 改變

協同化에 따른 變化의 다른 하나로서 文化的 農村建設의 進行과 組合員들의 衣食住 條件의 改變을 들어야 할 것이다. 組合마을의 中心에는 組合管理委員會 建物 등 組合共同建物を 세워 共同作業에 必要한 施設等を 갖추어 生活케 함으로서 協同化를 통한 共同生活의 感情과 集團意識을 造成한 것이다.

또한 그들의 옷의 種類와 가음들에 한하여 一般的인 政형을 보면 靑年들은 作業할때는 一般的으로 國內産 綿織物의 옷을 입는다. 中年 以上の 組合員들은 作業場에서 一般으로 바지, 저고리를 입는 것이 보통이나 간편한 옷을 입는 傾向도 점차로 늘어 가고있다. 女性들은 前夜作業에서도 老少를 莫論하고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일한다.

그리고 組合에는 재봉부(洋服部)가 設置되어 있다. 하루를 勞動에 보내는 女性들의 條件은 아이들의 衣服製作 까지도 裁縫部를 利用하는 傾向이다.

음식에서도 많은 變化가 일어났다. 집집마다 큰독 작은독을 갖 추고 메주를 쑤어 장을 담그던일은 農村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食料品 加工工業과 流通部門事業의 發展에 따라 부식물 까지도 商品에 依存하는 傾向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組合들이 自然部落을 單位로 하여 組合員들의 共同食堂을 運營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組合員 女性들까지도 부업에서 完全히 解放하여 그들의 生産作業에 動員하고 있는 것이다.

다. 새로운 社会生活

農村經營의 社会主義的 改造가 完成됨에 따라 農民들의 個人生活 및 家庭生活을 包含한 社会生活에서도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農村勤勞者들의 政治的 및 文化的 生活까지도 組合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組合이 運營하는 民主宣傳室과 組合内の 민청에는 農村에 適合한 書籍들과 新聞, 雜誌를 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組合員들의 生産活動과 社会的活動 그리고 정신 도덕적인 面에서 社会主義 革命을 일으켜 온 것이다.

3) 맑스-레닌主義 方法論

그들은 包括的인 充分한 資料가 蒐集될 수 있도록 그것을 社会와 歷史에 關한 맑스-레닌主義 學說에 비추어 한층 더 容易하게 分析하고 一般化하여 보다 더 正確하게 諸現象의 合法則性을 發見할 수 있도록 科學的 技術의 方法에 依存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協同組合을 對象으로 組合의 發展段階別 資料들을

分析하여야만 이것을 토대로 하여 生成 發展하는 새로운 文化와 風習을 歴史的 發展過程에서 理解할 수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北韓은 이같이 民族傳統的인 傳承民俗보다는 여러 民族을 초극하는 社會主義에 공헌하는 次元에서의 民俗을 研究하고 있는 것이다. 1951年부터 民俗資料에 對한 調査를 始作하였으며 古考學, 民俗學研究所를 開設하고 『文化遺産』 『古考民俗』 등의 雜誌를 속간하고 있으며 特히 1956年 以後부터는 民俗調査事業을 廣範圍하게 進行함으로써 民俗에 對한 組織的인 研究를 行하고 있다.

더욱이 協同組合은 生産關係研究를 集中的으로 行하여 庶民生活에 對한 生活文化 風俗 등을 調査하였으며 民俗學分野의 研究生을 양성하고 民俗舞臺團을 海外에 派遣 공연케 하는 등 活潑한 研究活動을 繼續하고 있다. 特히 沈淸伝은 소련에서 開催된 國際民俗芸大會에서 一等으로 認定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金日成은 三次勞動黨大會時 民俗學에 對한 研究方向을 提示함에 있어 우리의 文化遺産을 계승발전시켜 民族을 社會主義化하는데 그 目的이 있음을 천명한바 있다.

北韓의 民俗學者와 그 研究物을 보면 최승희의 『朝鮮民俗舞臺』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朝鮮民俗탈놀이, 혼인풍습 農村 年中行事 등을 収録하고 있으며 그밖에 이여성의 『조선복식고』 김영충의 『朝鮮美術史概要』 고정옥의 『朝鮮民謠研究』 등을 들 수 있다.

4) 北韓의 民俗놀이

北韓은 우리民族의 傳統的인 民俗놀이를 健全한 趣味와 높은 文化性을 지니고 있으며 庶民의 性格이 豊富한 것으로 높이 評價하고 있다.

北韓의 科学院 古考學 및 民俗學研究所 民俗學研究室 刊 『朝鮮의 民俗놀이』에 記載된 內容을 간추려 보면 大部分의 民俗놀이들이 庶民들 자신이 創作하여 庶民들 자신이 놀았고 庶民들 自身이 놀린 것이기 때문이다.

<씨름> <그네 뛰기>가 全民族的놀리로 오래동안 広範한 勤勞大衆 속에서 널리 普及되었던 것처럼 거의 大多數의 놀이들은 庶民의 日常生活와 不可分의 關係속에서 發展하여 왔다.

그리고 우리의 民俗놀이는 勞動의 즐거움과 生活의 기쁨을 반영한 것이 많다.

그리하여 일터에서는 사람들의 일을 다홍접게 하였고 나라를 지키는 싸움터에서는 모두가 團結하여 용감히 싸우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民俗 놀이들은 집체적 性格이 강한데서 團結과 친목의 고상한 품성을 기르는데 큰 힘으로 되었던 것이다.

우아한 <강강수월래>나 <쾌지나 칭칭나네>는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國民들을 團結과 斗争으로 불러 일으켰으며 兒童들의 유희인 <단심줄놀이>는 日帝를 反對하는 斗争時期에 各界各層 國

민들을 항일 斗争에로 團結시키고 쫓기시키는데 고무적인 힘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의 民俗놀이도 낙천적인 氣風과 豊富한 情緒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生活이 豊富하고 품성이 슬기로운 國民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상한 精神的 재부이다.

以上과 같이 우리民族은 아름답고 훌륭한 民俗놀이를 수 많이 남겼는바 이것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라고 記述하고 있다.

또한 金日成은 朝鮮勞動黨 第4次大會 報告에서 '先祖들이 남겨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모든것이 우리時代에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하겠다' 라고 함으로서 진보적인 것을 積極 찾아내어 社會主義生活化할것을 다짐한바 있다.

그러나 現在 傳承되어 大衆속에 보급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內容과 形式이 過去와는 현저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北韓은 民俗놀이中 62種을 추려서 놀이의 性格 方法과 機能이 유사한 것을 한데 묶어서 네개 部門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部門에는 노래, 춤, 음악을 위주로 한것을 묶었고 둘째 부문에는 운동경기를 위주로 한것, 셋째 부문에는 실내오락과 겨루기를 위주로 한 것이고 네째 부문에는 兒童놀이를 묶었다. 그리고 각 部門안에서 個個의 놀이들의 配列順序는 어떠한 原

則을 定하고 거기에 따른것이 아니라 놀이의 內容과 形式이 大體로 유사한 것들을 한데 모으는 方向에서 分類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들의 各部門別 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무놀이

농악놀이, 탈놀이, 응혜야, 돈돌라니와, 달래춤, 해지나 칭칭나네, 강강수월래, 놋다리놀이, 화전놀이, 마당놀이, 방천놀이, 시절웃놀이, 등놀어와 불꽃놀이,

나. 경기놀이

그네 뛰기, 널뛰기, 씨름, 활쏘기, 줄다리기, 돌팔매놀이, 쥐불놀이, 패불싸움, 차전놀이, 제기차기, 장치기, 콩치기, 격구, 마상재, 스싸움놀이

다. 겨루기

웃놀이, 쌍륙, 장기, 바둑, 고누, 수투, 증정도놀이, 람승도놀이, 고을모듬, 월교놀이, 산가지놀이

라. 아동놀이

단삼출놀이, 연 띄우기, 팽이돌리기, 썰매타기, 바람개비놀이, 수박따기, 친놀이, 숨박꼭질, 까막잡기와 사람 찾기, 망차기와, 돌아잡기, 비사치기, 자치기, 대말타기, 줄넘기, 공기놀이, 실뜨기, 풀싸움과 꽃싸움, 다리쌈놀이, 수박치기, 각시놀음,

3. 南北韓比較

가. 一般的인 比較

구 분	韓 国	北 韓
1. 연구 체제	1. 政府支援의 연구소 부 재 2. 韓国民俗文化人類学会 (150 名) 民俗学会 (80 名) 3. 個人別 연구처 중 분업 화 研究 未 吸	1. 社会科学院 . 고고민속연구소 및 民俗 研究室 (政府支援) 2. 民俗博物館 開設 3. 組織的 專門的 研究 4. 신진연구자 養成
2. 研究 내용	1. 廣範圍 2. 客觀性 維持	1. 무속신앙 研究에 소홀하 고 生活文化 研究에 차중 2. 유물사관 및 社会主義의 이데오로기에 연역시킴
3. 研究地 域分布	1. 中部以南	1. 황해도에 편중

以上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北韓은 研究組織面에서 크게 強化되어 조직적, 專門的 研究가 行해지고 있을뿐 아니라 民俗學關係의 學者數에 있어서도 훨씬 우세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두개의 民間機構가 있을 뿐이더 政府支援의 大規模 研究機關을 設置할 必要가 있겠으며 아울러 北韓資料를 充分히 蒐集하여 民俗學研究에 임함이 必要하다.

나. 分類別比較

北韓의 民俗學은 金日成이 三次勞動黨大會에서 淸명한바와 같이 文化遺産을 계승 發展시켜 民族은 社會主義이테오로기化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北韓의 民俗은 體制와 不可分의 關係를 갖게되어 民俗의 性格과 機能이 存在論的으로 規定되지 않으며 巫俗, 迷信 등은 非生産的인 것으로 規定하여 民俗信仰의 根底的價值를 否定함과 同時에 生産的 革命的 意味로서의 事例的인 民俗化 過程으로 變조 發展시켰음이, 틀림없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分類 論하면 다음과 같다.

1.) 慣習-歲時風俗-

歲時風俗이란 해마다 一定한 時期가 오면 慣習的으로 反復하여 行하는 生活行爲 즉 週期傳承의 儀禮的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慣習을 理解함으로써 北韓의 社會構造를 理解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北韓의 特徵的 社會構造下에서의 生活慣習化 過程으

로서 우리는 北韓의 民俗을 整理 解釋하지 않을 수 없다.

이 歲時風俗의 代表的인 것으로는 寒食, 八月秋夕, 시제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이것은 省墓 祭祀 등을 意味하는 것으로 土地制度와 關係가 되므로 그 本來의 意味는 매우 弱화됐을 것으로 思料되며 民俗社會의 生活과 農耕儀禮的인 것 중 農樂, 탈춤 등은 來日의 生産을 爲한 勞動의 休息으로서의 性格을 갖으며 民俗文化的인 價值는 否定되는 것이다.

또한 北韓에서 가장 큰 行祭라고 할 수 있는 勞動節(5.1) 行祭에는 '봉산탈춤'이나 '북청사자놀이' 등이 行해진 것으로 予想되나 이 勞動節은 勞動者層의 士氣와 生産擴大를 爲한 새로운 形態와 性格으로서 民俗化 過程을 거처온 것이라고 보겠다.

如何든 北韓社會의 文化와 生活風習은 協同組合을 中心으로 하는 協同化過程에서 生成發展된 것이며 이 協同化는 農民들의 家族風習에 根本的인 變化를 가져와 家族單位의 慣習은 이미 그 意味를 喪失한지 오래다.

그리하여 그들은 社會主義 建設을 爲하여 經濟的 諸課業과 함께 人들들의 儀式과 風俗속에 남아있는 資本主義社會의 諸要素와 殘在들을 請算하는 것을 가장 重要한 課業으로 提起하였다.

그중에서도 家庭風習은 오랜기간 낡은 전통과 습관을 維持코자하는 保守적인 要素의 하나로 認定하여 堅實한 社會主義的 家族의 強化와 家族風習의 社會主義的 改造 없이는 社會主義 社會建設의 完成을

促進시킬 수 없다고 하여 根本的인 變革을 加한 것이다.

2.) 民間信仰

民間信仰을 믿는 사람은 儀式과 呪術的인 方法을 따르는 結果에 우선적인 関心을 두고 있다는 점으로 다시 말해서 神보다는 人間이 民間信仰의 中心이 되어 神 앞에서 儀式을 거행하는 것은, 利益을 追求하는 方法으로 生覺되며 이것이 結局 神을 崇拜한다는 精神보다는 人間の 切迫한 欲求를 만족시키려고 神을 利用하는 精神이 우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體制라는 大前提下에 民間信仰은 巫俗 또는 迷信으로 生覺되어 적어도 外形上으로는 그 자취를 完全히 감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民間信仰이 없어지는 경우는 社會生活에 큰 罅이 생기게 되며 그 罅을 메꿀 수 있거나 또는 代替可能한 信念 또는 宗教가 없을 경우 그것은 社會적으로 심각한 不安定의 要因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北韓社會에 現存하는 民間信仰의 性格이나 社會的機能에 對한 規定은 不可能하며 다만 精神的인 生活文化的 罅을 메꾸기 爲한 措置로서 強制的인 行事が 民俗化過程을 거쳐 民俗으로서의 形態와 性格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3) 国碑伝承

① 傳統的인 민謡에 있어서는 그 本來의 歌謠는 一部 修正 또는 그대로 伝承되었을 것으로 보며, 歌詞內容은 많은 變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京城帝大 朝鮮語文學科 出身으로 現在 北韓民俗學界에서 활약하고 있는 高晶玉의 '朝鮮民謡研究(1949)'가 그 추측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본다.

說話는 伝承說話와 創作說話로 区分할 수 있는데 伝承說話는 점진적으로 그 伝承이 阻害 또는 금지되었다고 보며, 創作說話는 小説化 過程을 통하여 社會主義 史觀에 적합하도록 조작 構成하고 金日成의 唯一思想을 고취 내지는 선전하고 歷史를 날조하며 南韓을 비방하는 手段으로 利用하였을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傳統的인 意味에서의 說話의 伝承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음이 確實하며 一변도적인 文獻說話로서 文化史의 方法을 中心으로 하는 民族說話에 對한 研究 또는 그밖에 人類學的, 民俗學的, 社會學的, 文學的 方法 이외에 體制適合的 또는 긍정적인 方法에 의 한 研究가 크게 行해질 것으로 生覺한다.

IV. 民俗交流의 可能性과 問題點

1. 民俗交流의 可能性

南北韓의 民俗藝術은 各己 体制的인 異質性에 의한 文化類型의 差異때문에 民族의 傳統文化的인 民俗을 再發見 交流한다는 것은 相當한 限界性이 있다는 것을 予期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限界性的인 範圍 안에서 民族感情의 저변에 흐르는 民俗關係를 發見交流함으로써 單一文化권의 形成을 爲한 方向으로 努力하여야 함은 勿論이다.

또한 共同調查研究라든가 民俗무용단의 共同構成 等を 통한 對外協力方案이 切實히 要求된다 하겠다.

그 可能한 方法부터 考慮해 본다면 우선 一段階로 研究할 수 있는 것이 잡지 研究論文, 民俗關係物資 等の 民俗關係資料의 相互交換을 들 수 있다.

그리고 二段階로서 人的交流를 行하는 方法이며 그 具體的인 內容으로는 民俗博物館의 相互 交流觀覽이라든가 研究所 視察 또는 民俗무용공연의 相互交流(民俗무용단 共同構成 및 이의 해외 파견) 및 共同으로 調查研究(民謠, 說話, 産業 및 道具의 變遷 等に 對한)를 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具體的인 段階보다 더욱 重要한것은 民俗交流에 對한 相互理解와 성의있는 共同의 努力을 爲한 態度와 자세인

것이다.

이러한 態度의 形成을 爲한 努力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지 않을까.

2. 問題点 및 对策

民俗藝術交流을 爲한 当面 問題点을 提示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가. 交流에 對한 態度

南北對話의 進전을 爲한 一般的인 問題点으로 指摘되고 있는 것이나 對話 및 交流의 成功的인 結果를 爲하여 北韓側의 성의 있고 진지한 態度를 促求할 必要가 있다.

社會主義 文化政策의 一環으로서의 政治的인 利用을 目的으로 하는 限 民俗交流의 進전을 期待할 수 없다.

나. 北韓民俗資料의 充分한 入手

北韓은 南韓의 民俗關係 資料를 充分이 保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는 北韓資料의 入手가 매우 難問題로 되어 있어 現在로서는 第三国 特히 人접류가 또는 北韓과 交流가 많은 共產主義 國家와의 積極的인 접촉을 통한 資料의 獲得이 必要하다. 이같이 獲得된 資料는 國內, 關係學者에게 배포하여 研究토록 積極 支援함이 바람직 하다.

다. 組織的 研究体系의 確立

非組織的인 산발적(個人研究中心) 研究를 지양하고 組織的이고 專門的인 研究体系의 確立이 時急하다.

北韓의 研究 System 과 같은 規模있고 專門的인 古考民俗学 研究所와 民俗博物館 等を 設置하여 広範圍한 研究를 지원함이 要求된다.

以上으로 民俗芸術交流에 對한 몇가지 問題點과 그 對策을 考慮해 보았거니와 古考学이나 民俗学의 分野는 文獻的史料만 가지고는 充分한 研究를 行할 수 없으며 實際 北韓人의 慣習이나 民間信仰에 對하여 現地踏査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 그 좋은 例가 日本 奈良明日 香村에 있는 高松塚古墳의 벽화에 對한 南北韓의 學者와 日本學者와의 共同研究가 그 것이다.

이것은 第三国에서 南北의 學者가 對話를 하고 學術的인 交流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交流나 學術的인 information의 交換으로 民俗分野에 對한 綜合研究를 行하여 民族史의 體系化를 爲한 努力이 繼續 推進되기를 바랄뿐이다.

이 分野를 開拓하기 爲하여는 어떠한 方式의 對話와 어떠한 方法에 交流가 可能하며 바람직한 것이냐에 對하여는 매우 어려운 問題가 있다.

오늘의 現實로 보아 南北民俗交流의 方法을 모색할 段階라기

보다는 交流의 方法을 어떻게 研究할 것인가의 問題가 先行되어야 하며 現時點에 있어서 交流를 爲한 바람직한 方案을 生覺해 본다면 民俗學은 庶民層의 生活樣式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이니만큼 實地調査가 先行되고 또 그것을 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學問研究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分野에 있어서의 學術交流는 自由로운 往來를 통한 直接的인 접촉이어야 한다.

그러나 現段階에 있어서는 學者間의 相互往來는 時期尙早이며 民俗學이 政治理念과는 거리가 있다고는 하나 史觀의 問題와 關聯이 되므로 現體制下에서는 그 可能性이 稀薄하다.

그러므로 次善의 方法으로 學者間의 對話의 広場을 마련하는 것을 生覺해 볼 수 있다.

즉 學術會議을 開催하고 北韓學者를 招聘하여 共同討論을 試圖하는 方法이다.

이것도 實現이 어렵다면 다음의 方法으로서는 民俗關係資料의 交換을 生覺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이것은 個人間의 交換이 아니고 公共機關을 통한 交換이어야 하며 그 資料는 國內學者가 研究分析할 수 있도록 公開함이 좋을 것이다.

이와같이 學術資料交換의 段階에서 南北學術會議의 段階로 최종적으로는 自由로운 往來를 통한 調査研究의 段階로 發展되도록 努力할 것이다.

V. 對外協力方案과 그 問題點

1. 對外協力方案

對外協力の 問題를 研究하기 爲하여는 우리나라 民俗藝術의 發展을 爲한 몇가지 基本方針이 強力히 推進되어야 한다.

가. 民俗藝術 發展을 위한 專門的인 研究

研究体系의 強化로 組織的 專門的인 研究를 통하여 우리의 傳承民俗藝術을 綜合 發展시키고 나아가서 對外協力を 위한 方向으로 民俗을 分類 体系化할 것이다.

나. 韓国民俗의 海外紹介

海外弘報用 冊字 研究論文 또는 民俗무용단의 海外派遣으로 韓國의 民俗藝術을 海外에 널리 소개할 必要가 있다.

"선명회 어린이합창단" "리틀 에인절스"의 海外巡廻 공연이나 멕시코 올림픽에의 民俗藝術團의 派遣은 매우 成功的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強化할 必要가 있다.

나. 國際學術機構 및 活動에 積極參與

國際學術機構와 活動에 積極的으로 參加함으로써 南北韓 學者間의 對話의 기회를 마련하여 傳統民俗에 對한 學者間의 見解縮小 내지는 意見統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共同研究의 関心を 갖도록 함이 必要하다.

앞으로 國際機構를 통한 北韓學者의 活動이 크게 擴大될 것으로 予想되는바 이 方法은 매우 效果的일 것으로 본다.

이러한 우리의 基本方針을 強力히 實踐하는 立場에서 對外協力を 爲한 方案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1) 南北韓 直接對話에 依하는 方案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하여 南北韓 學者代表로 구성되는 研究 내지 調節機構를 設置함으로써 첫째, 傳承해야 할 傳統民俗藝術에 對한 綜合的인 共同研究을 行하도록 하고, 둘째 國際民俗藝術大會 等의 해외공연에 參加함에 있어서 單一 공연단을 構成 派遣하는 일이다.

北韓學者가 分類하는 가무놀이중에서 '농악놀이', '탈놀이' '강강수월래' '쾌지나 칭칭나네' '꼭두각시놀이' 등에 對하여는 그 時代的 背景과 性格을 正確하게 묘사 記述하고 있는 點으로 보아 交流 또는 무대화가 可能하다고 본다.

특히 "탈놀이"에 對하여 北韓學者는 地方的 傳承이 뚜렷한 몇개 탈놀이의 特性을 記術하고 있는데 서울을 中心으로 하는 산대놀이는 산대잡극의 傳統을 계승하고 慶南의 "五廣大"놀이는 처용무와 농악놀이가 結合된 特性을 띠고 있으며 황해도의 탈놀이는 西北地方에 전해온 民間탈놀이와 산대잡극이 結合된 것으로 봉천사회의 深刻한 계급적 모순을 藝術的으로 再現시킨 것이 特徵이라고 하여 그 藝術性을 認定하면서도 結局은 人民들의 승리를 쫓은 藝術的

形狀으로 予言하였다는 表現으로 社会主義 建設을 為한 民俗化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북청사자놀이도 마찬가지다. 이같이 北韓은 우리나라의 民俗놀이를 藝術性이 높은 民族文化遺産으로 傳承發見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体制에 對한 待女的性格이 그 前提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接觸交流가 可能한 部分이다.

2) 國際機構를 通하는 方案

北韓은 이미 유엔에 代表部를 設置하였으며 앞으로 그들의 국제무대에서의 活動은 더욱 擴大될 것으로 보며 많은 國際機構에 加入할 것이 予想된다.

특히 學術 또는 研究機關에 南北韓의 代表가 同時에 參與하는 경우 對話의 可能性을 더욱 커져 交流提議를 為한 与件이 造成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南北間 또는 南北을 包含한 數個國間에 協力体系와 通路가 이루어 질 수 있다.

北韓의 加入이 予想되는 國際學術機構로는 世界保健機構(WHO)에 이미 加入하였으며 國際聯合教育·科學文化機構(UNESCO), 世界 기상기구, 國際縮地學 및 지구물리학연맹, 國際抗結核同盟, 國際科學聯盟理事會, 國際電氣工學委員會 등을 들 수 있다.

3) 第三国을 通하는 方案

日本, 中共 또는 그밖의 特定国을 通하여 南北間의 接觸 交流를 推進하는 方法이다.

勿論 第三国の 積極的인 協助를 前提로 한다는 問題点이 있기는 하지만 第三国에서의 南北韓學者의 同時招請이나 南北民俗藝術 團의 초청은 試圖해 볼만한 일이다.

2. 問題点과 对策

가. 北韓民俗資料入手

- 1) 北韓資料를 蒐集하여 關係學者에게 배포
- 2) 北韓資料에 對한 통제완화
- 3) 北韓學者 現況把握

나. 學術外交強化 및 國際學術機構加入

- 1) 韓國民俗學 研究物의 海外研究所 배포
- 2) 海外 좌익계 교포 學者招請
- 3) 國際學術會議 參加對備

다. 民俗藝術 研究團體支援

다. 南北民俗藝術現況 比較評價研究

- 1) 研究機關 現況比較
- 2) 國際學術大會 參加比較
- 3) 學術活動 및 実績比較

나. 民俗博物館 設置

- 1) 室內 및 野外 民俗博物館 設置
- 2) 民俗村의 建設

VI . 結 語

우리의 民俗學은 다른學問의 補助役割로서 生成發展되어 오다가 1956年 韓國 民俗學會가 창設되고 1969年 韓國民俗硏究會(任東權)의 창간으로 獨立分野로서의 硏究體系를 갖게 되었으며 最近에는 韓國文化人類學會, 民俗學會의 活動으로 地方別民俗을 硏究, 民俗에 관한 綜合調查報告書가 作成되는 等 硏究體系化의 努力이 꾸준히 行해지고 있다.

보다 組織的이고 專門的인 硏究를 爲하여 民俗學術硏究所, 民俗博物館 等의 硏究機關을 強化하여 北韓學者 또는 外國學者를 초치하여 共同硏究의 關心을 유발할 수 있도록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이 있음직하다.

北韓의 民俗學者 高晶玉을 日本으로 초청 學術對話의 機會를 試圖해 봄도 좋을 듯 하다.

民俗은 庶民層의 生活樣式과 주변을 통하여 規定되는 것이지만 特定生活樣式이 民俗化를 規定할 수도 있으므로 兩者는 相互規定關係에서 成立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點에서 北韓의 民俗은 體制適應을 爲한 強要된 生活樣式이 民俗化로의 過程을 밟아왔다고 보아야 한다.

異質的인 社會秩序속에서 이러한 習慣化過程을 精神 生活面에서의

심각한 쟁을 形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北韓人の 自体生活에서 나타나는 傳統과 適應間의 갈등도 問題
려니와 南北韓의 精神文化的인 形態와 價値의 差異는 너무나 심오
하다.

더욱이 行動文化面에서는 價値選擇의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하고
있으므로 習慣化過程을 통한 北韓人の 人格形成은 極히 消極的이며
單一民族으로서의 民俗的基盤을 再發見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民俗內容가운데서도 民間信仰이나 國碑傳承 보다는 民族의 傳統儀式
的인 歲時風俗의 內容에서 부터 民族感情과 信仰을 發見再結合하는
努力으로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